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46호 (2014-25) 발행일 : 2014. 06. 27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결혼가치관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약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했으며,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기혼남녀 모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음

만혼 및 비혼의 핵심원인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였으며, 미혼남녀는 “집 장만 등 결혼비용”도 원인이었음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 차이를 나타냈는데, 기혼남성의 66.8%와 기혼여성의 64.0%가 반대하였으나, 미혼남성의 60.1%, 미혼여성의 50.2%가 찬성하였음. 그렇지만 기혼남녀와 미혼남녀 모두에게 혼전출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이었음

대학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모가 기혼남성 46.3%, 기혼여성 50.3%이었음. 심지어 취업~혼인 때까지와 언제까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도 기혼남성 43.5%, 기혼여성 40.1%로 높았음



김승권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장

1. 서론

- 가족가치관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가치관 뿐만 아니라 혼인, 출산, 양육, 부부 역할 등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임
 - 본 고에서는 혼인가치관, 만혼 및 비혼의 원인과 적정 결혼연령,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 책임 등을 중심으로 가족가치관을 논의함
 - 이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12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임
 - 기혼남녀는 15~64세, 미혼남녀는 20~44세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되었음

* 본 고에서 시계열적 자료는 다음의 두 자료를 참조하였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혼인가치관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약했고,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했음
 - 2012년 기준으로, 기혼자(남성 71.7%, 여성 61.3%)가 미혼자(남성 67.5%, 여성 56.7%)보다 결혼에 더 적극적이었고, 남성(기혼 71.7%, 미혼 67.5%)이 여성(기혼 61.3%, 미혼 56.7%)보다 결혼에 더 적극적이었음
 -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기혼남성이 2009년 71.9%, 2012년 71.7%로 유사하였고, 기혼여성은 2009년 60.6%, 2012년 61.3%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반드시 해야 함’은 같은 기간에 28.5%에서 19.1%로 크게 감소하였음
 -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미혼남성이 2009년 69.8%, 2012년 67.5%로 감소하였고, 미혼여성도 2009년 63.2%, 2012년 56.7%로 감소하였음
 - 따라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향후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가족형성과 출산율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표 1〉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기혼자	남성	32.7	39.0	23.5	4.3	0.5	100.0(1,892)
	여성	19.1	42.2	33.7	4.7	0.2	100.0(8,179)
미혼자	남성	25.8	41.7	26.5	3.4	2.6	100.0(1,855)
	여성	13.3	43.4	37.2	4.4	1.7	100.0(1,615)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더 강했고, 기혼남녀 모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음
 -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기혼남성 20.3%, 기혼여성 28.4%로 여성이 이혼에 더 적극적이었음
 -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증가하였는데, 기혼남성은 2009년(14.9%) 보다 강한 20.3%이었고, 기혼여성도 2009년(20.5%) 보다 강한 28.4%로 나타났음
 - 따라서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향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해체가족의 증가와 가족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2〉 기혼남녀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기혼남성	1.8	18.5	29.1	41.7	8.7	0.2	100.0(1,889)
기혼여성	2.7	25.7	35.1	31.8	4.5	0.2	100.0(8,178)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보면, 기혼남녀와 미혼남성은 부정적 의견이 강하였는데 비해, 미혼여성은 긍정적 의견이 강하여 대조적 양상을 보였음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반대의견은 기혼남성 70.2%, 기혼여성 60.3%, 미혼남성 56.9%로 높았으나, 미혼여성은 찬성하는 비율이 61.9%로 반대 비율 38.1% 보다 크게 높았음
-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미혼여성의 의견이 높은 것은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3〉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18.5	51.7	28.4	1.4	100.0(1,888)
	여성	11.5	48.8	37.2	2.5	100.0(8,167)
미혼자	남성	15.3	41.6	37.6	5.5	100.0(1,855)
	여성	6.6	31.5	53.4	8.5	100.0(1,618)

자료: 〈표 1〉과 같음.

3. 만혼 및 비혼의 원인과 적정 결혼연령

-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결혼가치관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이었음
- 미혼남녀는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도 만혼 및 비혼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하였음

〈표 4〉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찬성률(2012년) (단위: %, 명)

내용	기혼자		미혼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8	82.3	87.8	83.5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5.6	77.2	87.0	86.3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2.5	84.3	83.7	81.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60.3	68.1	65.7	79.1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56.7	61.6	56.3	61.3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69.8	78.0	69.3	76.3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61.8	69.8	66.5	78.5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68.8	77.6	65.0	76.9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42.7	52.5	49.4	72.2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49.8	57.6	58.2	78.4

주: 찬성률은 각 내용에 대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의 합
 자료: 〈표 1〉과 같음.

- 이상적 결혼연령은 기혼여부 및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남성 30~31세, 여성 27~29세 이었고, 과거보다 연장된 경향을 나타냈음
-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의견은 기혼남성이 30.34세로 가장 낮았고, 미혼여성은 31.94세로 가장 높았음
-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의견은 기혼남성이 27.88세로 가장 낮았고, 미혼여성이 29.60세로 가장 높았음
- 적정 결혼연령이 전반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결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 저하로 연결될 것임

〈표 5〉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적정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2009년 및 2012년)

(단위: 세)

구분		남성 적정 결혼연령		여성 적정 결혼연령	
		2009	2012	2009	2012
기혼자	남성	29.62	30.34	27.21	27.88
	여성	30.38	31.03	28.08	28.74
미혼자	남성	31.76	31.50	28.94	28.76
	여성	31.92	31.94	29.45	29.60

자료: 〈표 1〉과 같음.

4.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에 대해 기혼남녀와 미혼남녀 모두 찬성률이 높았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낮은 찬성률을 보였음

○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기혼남성으로 80.6%이었고, 기혼여성도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미혼남녀도 찬성률이 높았으나 기혼남녀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기 이전에 가족 간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 약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3.7	15.7	60.5	20.1	100.0(1,888)
	여성	3.1	18.6	61.5	16.7	100.0(8,170)
미혼자	남성	5.3	29.4	56.1	9.2	100.0(1,854)
	여성	5.3	29.1	55.9	9.6	100.0(1,617)

자료: 〈표 1〉과 같음.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에 대해 기혼남성만이 찬성률이 높았으며,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반대율이 높았음

○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기혼남성 52.1%이었고, 기혼여성은 반대율이 54.5%로 찬성률(45.4%) 보다 높았으며,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계층은 미혼여성 24.4%이었음

○ 이와 같은 미혼남녀의 사회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견으로 미루어 고등교육과 취업에 대한 여성의 강한 욕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표 7〉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4.7	43.2	45.0	7.1	100.0(1,818)
	여성	7.5	47.0	40.1	5.3	100.0(8,234)
미혼자	남성	15.3	51.2	29.5	4.0	100.0(1,843)
	여성	26.8	48.9	20.2	4.2	100.0(1,614)

자료: 〈표 1〉과 같음.

-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에 대해 기혼여부와 성별을 불문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아 현재 한국남성의 소극적 가사분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미혼여성으로 91.9%이었고, 가장 낮은 계층은 기혼남성으로 68.4%이었음

○ 따라서 가사분담에 대해 미혼남성의 적극성이 부족할 경우 부부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표 8〉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1.7	29.9	62.6	5.8	100.0(1,816)
	여성	1.1	21.9	61.2	15.7	100.0(8,232)
미혼자	남성	1.9	24.2	61.8	12.1	100.0(1,838)
	여성	0.9	7.1	55.6	36.3	100.0(1,616)

자료: 〈표 1〉과 같음.

-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세대 차이를 엿볼 수 있음

○ 반대율은 기혼남성이 66.8%로 가장 높았고, 기혼여성도 64.0%로 높았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혼남성의 60.1%, 미혼여성의 50.2%가 찬성하여 혼전동거에 비교적 긍정적이었음

〈표 9〉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음」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23.4	43.4	30.7	2.5	100.0(1,889)
	여성	24.7	39.3	32.5	3.5	100.0(8,171)
미혼자	남성	8.8	31.2	53.0	7.1	100.0(1,855)
	여성	11.9	37.9	40.6	9.6	100.0(1,618)

자료: 〈표 1〉과 같음.

- 기혼남녀와 미혼남녀 모두에게 혼전출산은 부정적이었음

○ 부정적 의견은 기혼여성이 82.7%로 가장 강하였고, 기혼남성도 81.0%로 강하였으며, 미혼남녀도 기혼남녀보다는 다소 약하였으나 강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음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은 결혼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혼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임

〈표 10〉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 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기혼자	남성	34.7	46.3	17.4	1.6	100.0(1,888)
	여성	36.7	46.0	15.2	2.0	100.0(8,173)
미혼자	남성	29.5	46.6	21.0	3.0	100.0(1,855)
	여성	29.6	42.5	22.9	5.0	100.0(1,618)

자료: 〈표 1〉과 같음.

5.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 책임

■ 자녀를 가지려는 의욕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강하였음

-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함”의 비율은 기혼남성이 53.5%로 가장 높았고, 미혼여성은 31.2%로 가장 낮았음
- 그렇지만 미혼여성도 자녀를 “갖는 것이 좋음”이라는 의견이 47.6%이어서 여전히 자녀를 가지려는 의욕을 엿볼 수 있음

〈표 11〉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수)
기혼자	남성	53.5	34.8	11.7	-	100.0(454)
	여성	45.5	37.7	16.4	0.3	100.0(4,079)
미혼자	남성	43.6	40.2	14.2	2.0	100.0(1,853)
	여성	31.2	47.6	19.0	2.2	100.0(1,608)

주: 기혼남성은 15~44세 유배우부인이 있는 가구의 남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기혼여성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함; 미혼자는 20~44세를 조사대상으로 함.

자료: 〈표 1〉과 같음.

■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혼남녀가 많았으나 미혼남녀는 다소 적어 다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기준,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혼자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남성 2.25명, 여성 2.47명), 미혼남녀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남성 2.02명, 여성 2.01명)
- 기혼자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009년 2.3명에서 2012년 2.2명으로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음¹⁾
 -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혼자의 평균 이상자녀수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2009년 1.87명에서 2012년 2.02명으로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은 같은 기간에 1.79명에서 2.01명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이상자녀수가 실제 출산에 영향을 준다면, 향후 다자녀 가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12〉 한국인의 혼인여부 및 성별 「평균 이상자녀수」에 대한 태도(2012년)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기혼자	2.25	2.47
미혼자	2.02	2.01

주: 기혼남성은 15~44세 유배우부인이 있는 가구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혼여성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함; 미혼자는 20~4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표 1〉과 같음.

■ 한국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자녀양육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대학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기혼남성의 46.3%, 기혼여성의 50.3%이었음
- 대학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은 2003년 40.2%, 2006년 46.3%, 2009년 49.6%, 2012년 49.6%의 변화추이를 보였음

1) 2009년 기혼자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기혼남녀로 구분되지 않아 전체를 제시함.

- 심지어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기혼남성 43.5%, 기혼여성 40.1%로 높음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음
 - 취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49.9%, 2006년 44.4%, 2009년 40.3%, 2012년 40.7%의 변화추이를 보였음
- 따라서 한국사회에 소자녀관이 정착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양육 부담은 과거보다 결코 감소되지 않았으며, 청년 실업이 심각할 경우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은 더욱 크질 것으로 사료됨

〈표 13〉 기혼남녀의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에 대한 태도(2012년) (단위: %, 명)

구분	기혼남성	기혼여성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7	8.9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6.3	50.3
취업할 때까지	17.7	15.3
혼인할 때까지	20.7	20.3
언제(까지)라도	5.1	4.5
기타	0.1	0.0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1.5	0.6
계(수)	100.0(1,814)	100.0(8,246)

자료: 〈표 2〉와 같음.

6.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가족의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가족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적 가족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음
 - 결혼이 개인 간 보다도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은 개인보다 가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성평등적 가족관계, 즉 부부 성역할에서의 평등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남성이 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강하지만, 향후에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을 보여 우리 사회에서 해체가족과 불안정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결혼가치관은 중요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가족형성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만혼과 비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여전히 자녀의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다자녀 보다는 소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을 하면 자녀출산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자녀양육에서의 부모책임은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음
 -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크며, 이러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 적은 자녀수를 원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소자녀관의 정착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정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 결혼은 사적 영역이지만, 개인이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혼을 못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에게 결혼생활을 위한 안정된 직장이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년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
 - 신혼생활을 위한 저렴한 주거를 많이 제공하는 주거정책과 함께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결혼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결혼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적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함
 - 남성이 가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정시 출퇴근의 제도화 및 생활화가 필요함
 - 통근시간의 단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부부의 어느 일방이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떨어져 사는 부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여성의 취업육구 증대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가사 및 양육과 직장근무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취업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무시간을 유연화 해야 할 것임
 - 해체가족과 불안정 가족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부모가족, 미혼독신가구,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이혼가족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기가구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모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학력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를 강화하여 과도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대학등록금 적정화 정책과 장학제도의 강화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함
 - 청년취업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사회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졸업~혼인까지의 기간에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최대한 마련할 수 있어야 함

집필자 | 김승권(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장) 문의 | 02-380-821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